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박우*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필리핀대학마닐라	기간	2017. 6. 17(토) ~ 7. 15(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p>파견대학 위치, 규모 및 시설, 전체적인 분위기 등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UP마닐라의 어학원 분원은 조용한 휴양도시 잠발레스의 남쪽 수빅에 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SBMA에 위치해 있으며 조용한 언덕의 한자락에 자리해 있다. 이따금 한국에서 듣지 못한 새소리가 들리며 근처 놀이공원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정겹다. 식당은 한식이 준비되며 3인 1실의 기숙사는 깔끔하게 매일 청소된다. 공부하기에 매우 적합하다.</p>
수업	<p>수업내용, 수업방법, 분반여부, 강사, 과제, 수업준비 등 수업 전반에 대하여 서술해주세요.</p> <p>수업은 첫 날 진행되는 레벨테스트를 바탕으로 5명이 한 개의 조로 구성되어 수준별로 진행된다. 하루 총 8시간의 수업을 진행하며 4개의 수업은 조별수업, 4개의 수업은 개인수업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유용한 수업은 토익스피킹 수업이다. 읽기 수업은 중학교의 영어와 별로 다를 바 없어 유용하지 못하다. 개인수업은 눈 딱 감고 강사교체를 통해 관심사 공유가 가능하며 발음이 정확한 사람으로 찾는 것이 좋다. 일상회화 향상은 개인 강습시간에 집중적으로 향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살집있고 푸근한 남자강사 두 명이 정확한 발음을 구사하며 성격이 좋다. 숙제는 강사의 성향에 따라 달라진다. 강도 높은 스파르타식 강사를 배정받거나 선택하게 되면 매일 밤마다 스마트폰의 녹음기를 붙잡고 발음 억양 강세 심지어 숨쉬는 길이까지 계산해가며 여섯 줄짜리 지문을 읽느라 고통받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강도 높은 숙제를 진행한 동기들의 회화수준이 괄목할 만큼 급상승한 것은 당연지사. 잡담 좋아하며 가십을 즐기는 강사들과는 회화가 늘 수 있을지언정 정확한 발음은 구사할 수 없음이다.</p>

Activity	수업 외에 별도로 진행된 Activity에 대해 서술해주세요. - Activity 종류, 내용, 준비물, 추가비용 등
	액티비티는 리조트활동과 요트, 고아원 봉사활동으로 구성된다. 선물을 준비하거나 리조트 내 점심값 등으로 적지않은 금액이 소모되며 수영복은 필수, 버릴 수 있는 옷도 준비하는 것이 좋다. 고아원 활동에서 옷이 쉽게 상하며 이따끔씩 시계를 풀어 들고가려는 아이들과 모자를 벗겨가려는 아이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p>현지 기후 및 유의점</p> <p>운이 좋게도 우기였으나 초기 2주간 비가 많이 오지않았고 조금 더 습한 것과 햇살이 더 강한 것 외에는 한국과 비슷하다. 우기가 시작되면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은 맑은 하늘에 번개가 치며 양동이에서 쏟아 붓는 듯 한 물방울이 목뼈를 꺾을 기세로 떨어진다.</p>
안전	<p>현지 안전 상황</p> <p>연평도에 폭격이 떨어졌을 때도 인천은 잠잠했다. 민다나오도 같은 수준으로 생각하면 좋다. 워낙 멀리 떨어져있어 무슨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다. 10회 가까이 잠발레스 시내에 혼자 나가봤으나 질풍노도의 10대 무리가 노려보는 것 외에 총과 칼을 들이대는 악당은 구경도 못 했다.</p>
숙소	<p>학교기숙사(<input checked="" type="radio"/>) 홈스테이 (<input type="radio"/>) 외부 숙소(<input type="radio"/>) 기타(<input type="radio"/>)</p> <p>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p> <p>테크니컬로 통칭되는 직원들이 하루 한 번 방을 청소한다. 청결상태는 두 말 할 것 없으며 전압도 220v로 같다. 4홀 멀티탭을 하나 가져가면 아주 좋을 것이다. 모기장 하나 있으면 한 달동안 말라리아는 걱정없다.</p>
식사	<p>학교식당 (<input checked="" type="radio"/>) 외부식당 (<input type="radio"/>) 기타 (<input type="radio"/>)</p> <p>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p> <p>어학원 식당의 어머님께서 한식밖에 못 하신다. 매일 점심이 가장 맛있으며 가장 자주나오는 메뉴는 닭과 돼지고기다. 아침은 빵 두 조각과 과일, 샐러드가 나오는데 상당히 배고프다.</p>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택시는 21시 이후에나 타는 것이 좋다. 심야할증도 없다. 미니스톱 맞은편에서 13페소로 FB를 항시 이용가능하다. 택시는 120페소면 탑승 가능하다. 150이상을 부르면 단호하게 노 라고 말한다. 욕설은 당연히 하면 안된다. 200이상을 부르면 숨 크게 들이쉬고 돌아서서 가면 된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6,000	출국 전 사전 납부
권고받은 금액	\$400	밥값, 술값, 옷값 (2주만에 소비)
추가 출금	\$66	역시 밥값과 술값 (아껴써서 1주)
수수료	\$14	현금인출 수수료가 비싸다
회장님과의 대담	\$200	맥주파티와 기념품
합계	\$680	생각없는 소비의 대명사로 남으려면

5. 출국 전 준비사항

파견 전 반드시 꼭 알아야 할 사항, 알았으면 좋았을 사항 중심으로 서술해주세요.

돈이 넉넉하면 한국에서 못해볼 귀중한 경험을 몽땅 해볼 수 있다. 세상천지 누가 한국에서 5만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브라질리언 욕망을 해보고 타투를 새기며 이어캔들링을 해보고 발톱정리를 다 해보겠나. 어느 누가 빈손으로 요트를 타러가서 인생샷을 남겨줄 생각을 할 수 있겠나. 한국에서처럼 적당히 좋은 밥 먹고 공부하다 올 사람이면 400불이 차고 넘치는 금액이다. 하지만 평범한 경험으로는 강사들과 대화주제가 부족할 수 있다. 강사들도 어학원 경력이 수 년인데 매일 같은 것만 경험하고 오는 학생들과 얘기를 해 봐야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출국 전 반드시 이것만 준비해 두자. 갑자기 뒤에서 꺼안는 변태를 제압할 호신술 하나와 400불 외에 150불 정도 더 있으면 훌륭하다. 그리고 하나 더, 겸손한 마음가짐을 가져가야 한다. 상대방을 깔보는 마음에선 그 무엇도 배워올 수 없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본인의 경험담, 느낀점, 향후 계획 등을 솔직하고 자유롭게 작성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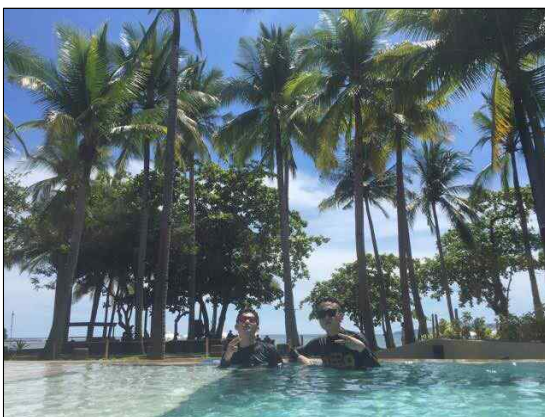
다들 고등학교 시절이 그리다고 말한다. 할 수 있다. 필리핀으로 가면 된다. 똑같다. 아침 8시부터 시작되는 수업에 50분 수업에 10분 휴식, 옆에 앉은 동기들은 좋은 수다쟁이들. 하나 다른 점은 어른이 되고싶다고 말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하고싶은 것 보고싶은 것 다 해보면서 어린시절로 돌아가는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 마닐라 투어에서 친구를 잘 만나면 4주만에 필리핀의 수도와 최고의 휴양도시에 수 많은 친구들을 두게 될 것. 확실히 나에게 적대적이지 않은 진짜 필리핀 친구를 말이다.

물론 아주 힘들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한동안 영어를 쓸 필요가 없었던 머리가 다급하게 영어를 끄집어내기 시작하는 처음 몇 일간은 휴식시간이 너무나 그립고 앞에 앉은 선생님은 쉴 새없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를 내뱉고 있다. 적당히 알아듣는 척 하면 넘어가는 고등학교 선생님과 다르게 뜬금없이 내 눈을 쳐다보며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묻는다.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질문을 던지고 있던 것. 며칠간 토할 것 같은 시간을 견디고 나면 이따금 혼잣말도 영어로 하고 있는 자신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선생님들도 인정한다. 한 달은 영어실력을 끌어올리기에 형편없이 짧다. 뭐, 한국에서 배운 것처럼 단어나 문법을 중점에 두고 생각을 한다면 조건부로 맞는 말이다. 하지만 불과 한 달만에 원어민에게 먼저 다가가서 영어로 말을 붙일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을까? 또 완벽히 알아듣고 정확히 대답할 수 없을지언정 최소한 대화의 주제를 이해할 수 있고 내 의사를 드문드문 말할 수 있는 실력을 가질 수 있을까? 천부적인 재능이 없는 이상 쉽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순식간에 강제로 귀가 열리고 말문이 트인다. 한 달동안 영어를 배우다 온 사람이 가장먼저 할 수 있는 행동이 무엇일까. 오픽을 보고 토익스피킹 시험을 보면 된다. 원하는 고득점을 받기에 약간은 부족하더라도 어렵지 않게 시험의 맛을 보고 섭섭하지 않은 성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안바야 리조트에서 만형과 함께



요트 뱃머리에서. 살면서 요트 몇 번이나 타겟나



마닐라 대학의 친구. 지식이 해박하다.



거의 동네친구가 다 된 리카와 하니



RMT바의 로컬 싱어. 예쁜사랑 하세요



가슴에 든 게 많으니 입이 열리지를 않는다